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읽기 태도 모형 연구

—읽기 목적과 읽기 매체 변인을 중심으로—

최숙기 한국교원대학교

- I. 서론
- II. 읽기 태도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V. 결론

I. 서론

읽기 태도는 읽기 자체나 혹은 읽기와 관련된 대상에 대해 독자가 느끼는 감정의 경향성으로 설명된다. 읽기 태도가 부정적인 독자는 읽기를 선택하고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가 촉발되지 않고 실제적인 읽기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독자의 읽기 행동은 독서에 참여하는 빈도나 독서량,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책을 읽는지를 설명하는 독서의 폭 혹은 범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때 독자의 읽기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읽기 행동이 활발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읽기 성취도 함께 향상될 수 있다.

이처럼 읽기 태도는 독자의 읽기 행동과 읽기 성취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므로 독자의 읽기 태도를 긍정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교육적 방안을 폭넓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읽기 태도는 읽기 동기만큼이나 읽기의 이유를 외적 동기나 내적 동기, 성취 이론, 효능감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해주지는 못하지만 읽기 동기와 같은 정의적 요인과 상관적 관계를 이루며 읽기 행동을 중재한다(최숙기, 2010a). 또한 읽기 태도는 읽기에 관한 지식이나 기능, 전략 등의 독자 인지 변인 중심의 읽기 교육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는 주요

한 독자 변인 중 하나이다.

읽기 태도가 지닌 읽기 행동과 읽기 성취에 대한 예측력을 고려할 때 학생 독자의 읽기 태도의 양상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생 독자들의 읽기 태도가 어떠한 수준인지를 탐색하고, 이러한 수준이 나타난 원인과 해결 방안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현행 읽기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생 독자들의 변화된 읽기 환경을 고려한 읽기 태도의 양상을 탐색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학교 안과 밖의 문식성 환경은 인쇄 텍스트와 디지털 텍스트 환경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인터넷 기술 발달과 매체 확산으로 인한 읽기 대상과 도구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학생 독자의 읽기의 실천 행위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실제 인터넷 사용에 관한 보고에서 전 세계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10억 명 이상이 인터넷을 통한 문식성 활동에 참여하며, 미국 청소년들의 73%는 정기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nhart, Simon, & Graziano, 2001). 또한 온라인 독해 활동의 경우에 미국의 8-18세 대상 학생들의 경우 인쇄 텍스트보다 디지털 텍스트 기반의 독서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14-25세 연령대의 89.9%는 전자책을 읽는다고 응답하였다(Robnolt, Rhodes, & Richardson, 2005). 최근 미국 청소년들의 93%는 인터넷 사용자로 문식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온라인 독자로의 참여 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Lenhart, Madden, MacGill & Smith, 2007).

우리나라 청소년 독자들의 경우에도 10대 청소년 독자들 중 21.5%는 전자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나 약 5명 중 1명이 디지털 독자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자책 독서실태조사, 2012).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디지털 문식성에 대한 수행 양상을 탐색하기 위해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 2,203명을 대상으로 최숙기(출판중)의 연구에 따르면, 뉴스나 블로그, 페이스북, 웹사이트나 전자우편 등을 통한 온라인 읽기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인터넷

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학생들의 약 93%는 온라인 독자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독자들은 전통적인 읽기 활동과 더불어 인터넷 뉴스나 블로그, 페이스북, 온라인 토론방, 웹사이트, 전자우편 등을 통해 끊임없이 디지털 텍스트 읽기 활동에 참여한다. 전통적인 읽기 매체 환경과 차이를 고려할 때 디지털 매체 환경의 본질과 행동 유도성은 독자의 읽기 태도 형성에 특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청소년 독자를 대상으로 한 읽기 태도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와 연계하여 우리나라 학생 독자들의 읽기 태도 발달에 나타난 전반적 경향성을 진단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생 시기와 변별되는 청소년 시기의 읽기 태도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읽기 환경을 반영하여 읽기 매체 유형별 읽기 태도의 특성을 분석하고 전통적인 인쇄 텍스트 읽기 태도와 디지털 텍스트 읽기 태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읽기 태도의 발달과 읽기 환경, 목적, 매체 간의 관련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II. 읽기 태도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1. 읽기 태도의 개념

읽기 태도는 읽기 대상에 대해 독자가 느끼는 감정적 반응이자 접근 혹은 회피를 결정짓는 심리 경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읽기 행위 혹은 읽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책이나 특정 상황에 대한 독자의 긍정 혹은 부정적 감정 경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최숙기, 2010b 재인용).

읽기 태도의 개념을 논의한 Alexander & Filler(1976)나 Smith(1990)는 모두 읽기에 대한 일관된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 태도 혹은 읽기에 대한 감정적 경향으로 읽기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읽기 태도는 읽기 행동을 결정짓기 이전에 독자의 읽기에 대한 요구 수준을 결정하여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읽기 태도는 읽기 행동을 직접적으로 견인하지는 않지만 읽기 촉발 의도 혹은 읽기 지속 의도를 자극하여 독자가 읽기를 수행하도록 이끄는 정의적 요인이다. Mathewson(1994)은 읽기 태도의 이러한 매개적 효과를 구조화하여 읽기 태도와 읽기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이 읽기 태도에 주목한 이유는 읽기라는 행동의 발생 원인을 밝히고 독자들의 읽기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긍정적인 읽기 태도를 지닌 독자는 읽기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고 전체적인 독서량이 많으므로 목표로 한 읽기 성취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반면에 부정적인 읽기 태도를 지닌 독자는 읽기 활동 자체에 참여하고자 하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읽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Mathewson(1994)은 읽기 태도 모형은 세 가지 중심 요소인 읽기에 대한 감정, 읽기 행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준비도, 읽기에 대한 신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정의, 의지, 인지적 관점으로 읽기 태도를 정의한다. 이 정의에서 읽기 태도는 개인 가치, 목적, 자아 개념 등의 초석 개념과 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로 설명되는 설득적 의사소통 간의 인과적 관계로 설명된다.

Ajzen & Fishbein(1980)과 Liska(1984)의 연구에 영향을 받아 McKenna(1994)는 Mathewson(1994) 모형의 한계를 극복한 읽기 태도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는 Mathewson(1994)의 읽기 태도에 관한 인지적 요인에 해당하는 평가적 신념이 분리된 구인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읽기 태도가 발달하는 방식과 읽기 행동을 결정하는 독자의 주관적 기준에 대해 주목하였다. 또한 읽기 태도에 선행하는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신념 체제에 주목하였다. 독자의 신

념 체제는 (1) 바람직한 읽기 결과물을 산출할 것이라는 독자 자신의 결과물(outcomes)에 대한 신념, (2) 타인의 기대에 대한 신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McKenna(1994)는 Mathewson(1994)과 달리 읽기 태도가 읽기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읽기 의도의 중재 효과에 대하여 다른 입장을 제시하였다.

읽기 결과물에 대한 신념은 경쟁 행동이나 후속 읽기 결과물과 관련하여 형성된다. 독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다른 더욱 흥미 있는 여가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것은 읽기에 대한 신념이나 후속적 읽기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읽기 행동을 둘러싼 성별이나 문화와 관련한 사회적 규준, 부정적 읽기 경험은 독자의 읽기 태도를 부정적으로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숙한 독자들은 읽기 과정에서 좌절과 지루함을 경험할수록 읽기 태도가 부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2.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 태도 양상

읽기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는 읽기 행동이나 읽기 성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들의 읽기 태도 양상을 조사하는 것은 읽기 실태를 분석하는 주요한 방안 가운데 하나이다. 읽기 태도 양상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조사 대상 학생들의 읽기 태도의 발달 양상과 내재적인 성별 차이에 주목하였다.

읽기 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중학생 시기까지의 읽기 태도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양상으로 변화함을 일관되게 보고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인 초등학교 학생들의 읽기 태도를 위한 국가 수준의 대단위 표집에 근거한 McKenna, Kear, Ellsworth(1995)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시기부터 6학년 시기에 이르는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읽기 태도의 부정적 발달 양상에 포착하였다. 이러한 읽기 태도의 부정적 발달 양상은 McKenna, Stratton, Grindler, & Jenkins(1995), Anderson, Tollefson, & Gilbert(1985),

Barnett & Irwin(1994)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도 읽기 태도가 학년이 높을수록 점차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윤준채, 2007; 윤준채 · 이형래, 2007; 최숙기, 2010a; 정혜승 · 서수현, 2011). 중학생들의 읽기 태도의 부정적 발달 양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중학생들의 읽기 태도 역시 부정적으로 발달한다는 사실들이 일관되게 보고된 바 있다(윤준채 · 김영란, 2008; 정혜승 · 서수현, 2012; 최숙기, 2010b).

그러나 국내외의 읽기 태도 발달에 관한 연구는 주 대상이 초등학생이며 고등학생 집단을 포함한 청소년의 읽기 태도 양상을 분석한 연구들은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고등학생 시기의 읽기 태도의 발달 양상은 이전 학년 시기에 나타난 읽기 태도의 부정적 발달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Mitchell & Ley(1996)에서는 9학년에서 12학년 사이에 읽기 태도는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McQuillan(2013)과 최숙기(2010b)의 연구에서도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의 읽기 태도가 더욱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보고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고등학생들의 읽기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탐색하거나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탐색한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읽기 태도의 성별 차이에 주목한 연구들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읽기 태도가 더 긍정적임을 보고하였다(Anderson, Tollefson, & Gilbert, 1985; Barnet & Irwin, 1994; Greaney & Hegarty, 1987; Kush & Watkins, 1996; McKenna & et al., 1995; Ross & Fletcher, 1989).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학생이 남학생들에 비해 읽기 태도가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윤준채 · 김영란, 2008; 정혜승 · 서수현, 2011, 2012; 최숙기, 2010b).

여학생의 읽기 태도가 남학생에 비해 더욱 긍정적이라는 사실은 읽기 성취도에서 나타나는 여학생 우위 현상을 설명하여 주는 주요 근거이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읽기 성취도가 낮은 이유는 남학생의 읽기 태도가 더욱 부정적이므로 읽기에 참여하는 정도가 더욱 낮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읽기 태도 양상을 분석한 가장 최근의 연구인 McKenna *et al.* (2012)은 여가와 학습이라는 읽기 목적, 인쇄 텍스트와 디지털 텍스트라는 읽기 매체에 관한 총 4개의 하위 태도 변인을 범주화하여 미국 23개주 4,491명의 6학년부터 8학년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단위 읽기 태도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인쇄 텍스트 중심의 읽기 태도 범주를 확장하여 디지털 텍스트에 기반을 둔 읽기 활동과 실재를 반영한 읽기 태도 범주를 포괄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새롭게 변화한 문식성 환경에서 출현하는 읽기의 실재를 토대로 하면서 읽기 목적과 읽기 매체 변인이 독자의 읽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검사 도구

한국 청소년들의 인쇄 텍스트와 디지털 텍스트에 대한 읽기 태도 양상을 탐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McKenna *et al.* (2012)이 개발한 읽기 태도 검사를 적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McKenna & Kear(1990)이 개발한 읽기 태도에 관한 문항을 바탕으로 하되 인쇄 텍스트와 디지털 텍스트라는 매체 조건과 학습과 여가라는 읽기 목적 조건을 고려하여 관련 구인에 대한 동형 문항을 개발한 뒤 미국 23개주 5,08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타당도 연구를 실시한 결과 개발된 것이다.

이 검사 도구는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 학습 목적의 디지털 텍스트 읽기 태도, 2) 여가 목적의 디지털 읽기 태도, 3) 학습 목적의 인쇄 텍스트 읽기 태도, 4) 여가 목적의 인쇄 텍스트 읽기 태도의 4개 요인으로 문항

이 범주화된다. 하위 요인별 문항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읽기 태도 검사 도구 구성

구성 요인	관련 문항	문항수	Cronbach's α
학습 목적 디지털 텍스트 읽기	1, 5, 7, 12, 17, 20	6	.800
여가 목적의 디지털 텍스트 읽기	4, 10, 15, 16, 19	4	.782
학습 목적의 인쇄 텍스트 읽기	3, 6, 14, 18, 21	5	.772
여가 목적의 인쇄 텍스트 읽기	2, 8, 9, 11, 13	6	.861
전체		21	.896

본 연구에서는 McKenna *et al.*(2012)의 21개 문항을 번역하였고 이에 대하여 현직 국어교사 5인이 문항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다.¹ 문항 척도는 McKenna *et al.*(2012)과 동일하게 6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그렇다(5점)”, “매우 그렇다(6점)”의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다. 전체 문항의 검사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0.896로 나타나 검사 신뢰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McKenna *et al.*(2012)은 전체 문항 신뢰도가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하위 구인별 문항 신뢰도는 Cronbach's α 의 0.78~0.86의 분포를 보여 본 연구와 유사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고하였다. 또한 구성 요인별 신뢰도의 값 크기도 거의 유사하였다.

1 문항 번역 과정에서 21개 문항에 대한 번역 후에 문항 번역에 참여한 교사 5인은 문항의 용어와 문장 번역 내용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였고 번역 정확성 검토를 위한 역번역 과정은 반본 연구에서는 거치지 않았다. 번역 과정에서 ‘~얼마나 좋아하는가?’의 의문형 문장을 ‘~좋아한다.’의 평서형 문장으로 바꾸는 것이 학생 반응이 신뢰롭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문항을 모두 평서형 문장 형태로 번역하였다. 또한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문항 15번의 경우 ‘MySpace’를 한국의 ‘싸이월드’로 대체하여 번역하였다. 문항 16번의 경우 여가 독서 상황을 설명하는 ‘비오는 토요일(rainy Saturday)’에 대한 맥락 이해를 돕기 위해 ‘비오는 주말 오후 혹은 여유가 있을 때’로 대체하여 번역하였다.

2. 조사 대상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디지털 텍스트와 인쇄 텍스트에 기반한 읽기 태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국 분포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상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표본은 편의추출표집(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여 확보하였으며 전체 조사 참여자는 2,942명이었다. 이 중 중학생은 480명(16.31%), 고등학생은 2,462명(83.68%)으로 학교급별로 참여자 수가 약 4배의 비율로 고등학생의 수가 훨씬 높았지만 학교급 내의 성별 비율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조사 대상에 대한 정보는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참여 대상

학년	남학생	여학생	합계
중1	170	156	326
중2	21	70	91
중3	5	58	63
고1	439	489	928
고2	317	379	696
고3	465	373	838
합계	1,417	1,525	2,942

3. 조사 방법

본 조사는 전국에 분포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2013년 6월~7월까지 약 2달에 걸쳐 실시되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전자 우편을 통해 설문 문항을 포함한 조사지를 배포하고, 설문에 관한 안내문을 첨부하였다. 안내문에는 검사 실시 시간, 반응 척도에 대한 설명, 문항 개발 의도를 제시하고 실시 방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였다. 학생들은 설문 조사를 하면서 교사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 받았으며 검사 시간은 30분이었다. 이후 우편을 통해 조사 결과 자료를 수합하였다.

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for Windows와 Amo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먼저 설문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은 21개 읽기 태도 문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4요인 가설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4요인은 학습과 여가의 읽기 목적, 디지털와 인쇄 매체에 따른 텍스트별 요인을 4개로 구성되었다. 확인적 요인 분석은 모형 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해 적합도 지표인 CFI(Bentler, 1990), RMSEA(Browne & Cudeck, 1993), TLI(Tucker & Lewis, 1973)와 χ^2 을 점검하였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 향상을 위해 요인 부하량과 유의성,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평균분산추출),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수정 지수(Modification Index)를 분석하였고 문항을 삭제하여 최종 모형을 확정하였다. 다음으로 기본 연구 가설 검정에 추가하여 연구 대상의 학교급별, 성별 변인이 디지털 및 인쇄 텍스트 읽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집단 요인분석(multigroup CFA)과 M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디지털 텍스트와 인쇄 글 텍스트 읽기 태도 모형에 관한 확인적 요인 분석 실시

21개의 읽기 태도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학문적 디지털 읽기, 학문적 인쇄 글 읽기, 여가 목적의 디지털 글 읽기, 여가 목적의 인쇄 글 읽기의 4개의 잠재 변수를 설정하

고 모든 잠재변수를 공분산으로 연결하였다. 4개 요인분석 모형에 해당하는 측정 변수는 총 21개 문항으로 McKenna *et al.* (2012)의 초기 문항 21개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형 간결성과 적합성을 설명하는 4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chi^2_{183}=4079.451$ ($p < 0.001$), CFI = 0.859, TLI = 0.838, RMSEA = 0.085였다.

가설 모형에 대한 분석에서 χ^2 값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과 실제 데이터 간의 차이를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이 적합도 지수는 표본의 크기에 종속적이므로 크기가 클 경우에 기준치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외 모형 적합도에서 CFI 값과 TLI 값이 각각 0.859과 0.838로 수용 기준인 0.9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였고, RMSEA는 0.085로 적합도 기준인 0.05에서 0.08 범위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읽기 태도의 가설 모형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 부하량과 유의성,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평균분산추출),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을 점검하였다.

가설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부하량과 유의성에 대한 검증에서 4개 구인에 대한 측정 변수들의 비표준화계수인 C.R. (Critical Ratio) 값은 27.536~40.652($p < 0.001$)로 모두 1.965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 변수들은 유의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읽기 태도의 21개 문항은 모두 $p <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여가적 디지털 읽기 태도 문항 16번, 19번 문항과 학문적 디지털 읽기 태도 문항 20번, 21번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모두 0.48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McKenna *et al.* (2012)의 연구에서도 문항 16번, 19번, 20번은 낮은 요인 부하량으로 동일하게 삭제되어 잠재 변인을 실제적으로 설명하는 측정 문항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뒷받침해준다.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할 뿐 아니라, 표준화 요인 부하량은 0.5 이상이어야 하며, 0.7 이상일 경우 바람직한 문항으로 볼 수 있다. 0.5보다 낮은 요인 부하량을 가진 문항은 반드시 제거할 필요가 있다. 가

설 모형의 AVE는 0.323로 0.5 이하로 나타나 집중 타당도에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개념 신뢰도는 0.907로 0.7 이상으로 나타나 가설 모형의 집중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표 3. 모형 적합성 향상을 위한 삭제 문항 정보

관련 구인	측정 문항	Estimate
학습 목적 디지털 읽기 태도	R20 나는 선생님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수업을 하시는 것을 좋아한다.	.458
학습 목적 인쇄 글 읽기 태도	R21 나는 수업 시간에 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464
여가 목적 디지털 읽기 태도	R19 나는 여가 시간에 인터넷으로 음악, 영화, 운동이나 쇼핑 등의 관심 주제에 관한 글을 찾아 읽는 것을 좋아한다.	.415
	R16 나는 여가 시간에 인터넷 검색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435

*p < .001.

읽기 태도에 관한 모형 적합성을 살피기 위해 수정 지수(Modification Index)를 점검하였다. 수정 지수에서 두 변수 간에 공분산을 설정하였을 때 향상될 수 있는 χ^2 의 최솟값을 통해 적합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e20과 e21의 공분산을 설정하였을 경우 가장 크게 적합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χ^2 의 값은 최소한 655.626만큼 감소할 수 있다. Par Change는 Parameter Change의 약자로 두 변수 간 공분산 분산을 설정하였을 때 대략적인 추정치를 의미하며 e20과 e21의 공분산은 약 0.633이다. 그러나 e21의 측정변수인 문항 21이 삭제되었으므로 오차항을 연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구 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χ^2	df	CFI	TLI	RMSEA	GFI
가설 모형	4079.451*	183	.859	.838	.085	.869
수정 모형	1458.738*	113	.942	.930	.064	.942
수용 기준	p > .05		.90이상	.90이상	0.5이하	

*p < .001.

4개의 문항을 모두 제거하고 2차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정된 4요인 모형의 적합도에서 $\chi^2_{113}=1458.738$. ($p<0.001$)로 값이 훨씬 낮아져 수정 모형이 가설 모형에 비해 입력 자료를 훨씬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FI 값과 TLI 값도 각각 0.942와 0.930로 수용 기준인 0.90 이상으로 나타났다. RMSEA 값의 경우, 0.05 이하면 좋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Browne & Cudeck(1993)에서 0.05-0.08의 범위 설정에 따르면 0.064로 수용 기본 범위에 합당한 것으로 나타나 수정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수정 지수에 대한 검증에서 e20과 e21의 공분산 설정을 통한 적합도 향상에 관한 논의는 e21의 측정변수인 문항 21을 삭제하였으므로 오차항을 연결하여 공분산 설정을 개별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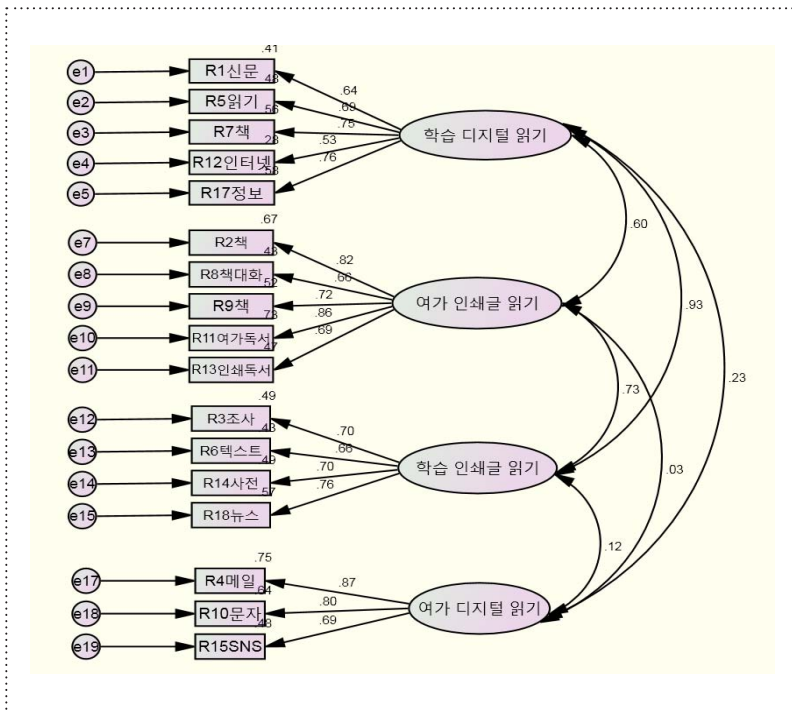


그림 1. 우리나라 청소년의 읽기 태도 경로 모형

표 5. 학년별 성별 읽기 태도 모형의 모수 추정치

태도 구인	문항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남학생	여학생
학습 목적 디지털 읽기 태도	R17 나는 공부를 위해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찾는 것을 좋아한다.	0.762	0.798	0.752	0.752	0.768
	R12 나는 반 친구들과 인터넷에서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0.527	0.570	0.519	0.594	0.444
	R7 나는 공부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전자책 등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0.75	0.801	0.737	0.772	0.726
	R5 나는 공부를 위해 인터넷 상에서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0.691	0.747	0.680	0.768	0.613
	R1 나는 공부를 위해 온라인 뉴스를 읽는 것을 좋아한다.	0.636	0.692	0.623	0.653	0.632
여가 목적 인쇄글 읽기 태도	R13 나는 여가 시간에 책이나 글(편타지 소설, 만화책 포함)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0.686	0.708	0.684	0.644	0.707
	R11 나는 비오는 주말 오후 혹은 여유가 있을 때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0.856	0.840	0.859	0.855	0.844
	R9 나는 책이나 잡지를 선물로 받는 것을 좋아한다.	0.719	0.658	0.733	0.689	0.72
	R8 나는 여가 시간에 읽은 책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0.658	0.670	0.657	0.64	0.656
	R2 나는 여가 시간에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0.816	0.815	0.814	0.799	0.832
학문 목적 인쇄글 읽기	R18 나는 수업을 위해 신문기사나 잡지를 읽는 것을 좋아한다.	0.758	0.808	0.743	0.765	0.75
	R14 나는 수업을 위해 사전을 찾는 것을 좋아한다.	0.7	0.678	0.709	0.709	0.679
	R6 나는 교과서를 읽는 것을 좋아한다.	0.656	0.698	0.646	0.677	0.62
	R3 나는 수업을 위해 백과사전이나 다른 책을 사용하여 자료를 조사하는 것을 좋아한다.	0.7	0.648	0.717	0.705	0.696

여가 목적 디지털 읽기 태도	R15 나는 자유 시간에 싸이월드나 페이스북 등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0.693	0.717	0.688	0.696	0.692
	R10 나는 여가 시간에 친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0.797	0.808	0.795	0.771	0.818
	R4 나는 여가 시간에 친구에게 전자 우편을 쓰거나 인스턴트 메시지(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를 보내는 것이 좋다.	0.866	0.843	0.871	0.87	0.86

표 6. 읽기 태도 모형에 대한 모수 추정치

태도 구인	문항	M	SD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P	Cronbach's α
학습 목적 디지털 읽기 태도	R17	3.51	1.28	1.000	.762	-	-		.799
	R12	3.33	1.36	.735	.527	.027	27.536	.000	
	R7	2.94	1.20	.924	.750	.023	40.174	.000	
	R5	3.30	1.40	.996	.691	.027	36.779	.000	
	R1	2.89	1.30	.850	.636	.025	33.668	.000	
여가 목적 인쇄글 읽기 태도	R13	3.89	1.46	1.000	.686	-	-		.823
	R11	3.33	1.38	1.174	.856	.029	40.652	.000	
	R9	3.47	1.46	1.050	.719	.030	35.135	.000	
	R8	3.10	1.35	.887	.658	.027	32.432	.000	
	R2	3.34	1.36	1.105	.816	.028	39.209	.000	
학문 목적 인쇄글 읽기	R18	3.12	1.26	1.000	.758	-	-		.799
	R14	2.88	1.25	.914	.700	.024	37.655	.000	
	R6	3.28	1.24	.851	.656	.024	35.108	.000	
	R3	2.82	1.22	.889	.700	.024	37.644	.000	
여가 목적 디지털 읽기 태도	R15	3.71	1.55	1.000	.693	-	-		.823
	R10	3.98	1.36	1.013	.797	.028	36.668	.000	
	R4	4.23	1.38	1.117	.866	.030	36.704	.000	

다음으로 디지털 텍스트와 인쇄 텍스트 읽기에 대한 태도에 대한 학교
급별 집단과 성별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multi-group CFA)을 실시하였고 교차 타당성(cross-validation)을 검증하였다. 교차 타당성은 집단 간의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집단 간의 요인 구조 동등성 평가를 위한 형태 동일성 검증을 선행한 뒤 측정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측정 동일성 검사 순서는 1) 요인 부하량 동일성 → 2) 요인 부하량, 공분산 동일성 → 3) 요인 부하량, 공분산 및 오차분산 동일성의 단계로 실시하여야 한다(Myers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읽기 태도에 요인 부하량, 공분산 및 오차 잔차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p < 0.05$), 모형에 대한 CFI, TLI, RMSEA 적합도 지수를 고려할 때 강한 적합도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성별 모형의 측정 동일성 분석 결과

	χ^2	df	CFI	TLI	RMSEA	$\Delta\chi^2$	sig, Dif
model1 비제약 형태 동일성	1630.156	226	.938	.926	.046		
model2 λ 제약 요인부하량 동일성	1653.826	239	.938	.929	.045	$\Delta\chi^2$ (13)=23.67	유의
model3 ϕ 제약 공분산 동일성	1664.395	236	.937	.928	.045	$\Delta\chi^2$ (10)=34.24	유의
model4 λ, ϕ 제약 요인부하량, 공분산 동일성	1703.693	249	.936	.930	.045	$\Delta\chi^2$ (23)=73.54	유의
model5 λ, ϕ, θ 제약 요인부하량, 공분산, 오차 분산 동일성	1876.149	266	.929	.927	.045	$\Delta\chi^2$ (40)=245.99	유의

표 8. 학교급별 모형의 측정 동일성 분석 결과

	χ^2	df	CFI	TLI	RMSEA	$\Delta\chi^2$ /df	sig, Dif
model1 비제약	1663.293	226	.938	.925	.046		

model2 λ 제약	1688.292	239	.937	.929	.045	$\Delta\chi^2$ (13)=25.00	유의
model3 ϕ 제약	1715.518	236	.936	.926	.046	$\Delta\chi^2$ (10)=52.23	유의
model4 λ, ϕ 제약	1748.463	249	.935	.929	.045	$\Delta\chi^2$ (23)=85.17	유의
model5 λ, ϕ, θ 제약	1840.874	266	.932	.930	.045	$\Delta\chi^2$ (40)=177.58	유의

2. 읽기 매체와 읽기 목적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읽기 태도 구인 간 관계 분석

학습과 여가 목적의 읽기 목적 상황과 디지털 텍스트와 인쇄 텍스트의 텍스트 유형별 상황을 종합한 4개의 읽기 상황별 하위 구인 간의 관계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읽기 태도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9. 우리나라 청소년의 읽기 태도 하위 구인 간 상관관계

문항	학습디지털읽기	여가디지털읽기	학습인쇄글읽기	여가인쇄글읽기
학습디지털읽기	1	.223*	.741*	.527*
여가디지털읽기		1	.111*	.051*
학습인쇄글읽기			1	.622*
여가인쇄글읽기				1

* $p < .001$.

먼저 학습 목적의 읽기 태도는 디지털 텍스트와 인쇄 텍스트 환경에서 태도 구인 간 상관이 0.74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에 읽기 매체 혹은 텍스트 유형이 학습 목적의 읽기 태도에 대한 차이를 유발하는 변인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여 준다. 또한 인쇄 텍스트 환경에서 학습 목적의 읽기 태도와 여가 목적의 읽기 태도 간의 상관은 0.62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에 인쇄 텍스트 환경

에서는 읽기 목적이 읽기 태도 간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 변인으로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뒷받침해준다.

반면에 여가 목적의 읽기 태도에서 읽기 매체 혹은 텍스트 유형은 매우 큰 차이를 유발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텍스트와 인쇄 텍스트 환경에서의 태도 구인 간 상관은 0.05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여가 목적의 디지털 텍스트 읽기 태도는 학습 목적의 디지털 읽기 태도와의 상관도 0.223으로 다른 태도 구인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상관 수준 자체는 매우 낮았다. 이에 대해 Meckenna *et al.*(2012)은 여가 목적의 디지털 텍스트 읽기 태도를 설명하는 페이스 북이나 싸이월드, 문자 메시지 발송, 전자 우편이나 SNS를 통한 메시지 발송하는 활동이 다른 읽기 태도 구인을 설명하는 읽기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여가 목적의 인쇄 텍스트 읽기 태도의 경우에 읽기 매체나 읽기 목적에 상관없이 다른 읽기 태도에 0.5 이상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데 반해, 여가 목적의 디지털 텍스트 읽기 태도와 다른 읽기 태도 구인 간에 상관관계가 매우 낮게 추정되는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상은 미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Meckenna *et al.*(2012)에서도 발견된다. 이 연구의 경우에 여가 목적의 디지털 텍스트와 인쇄 텍스트 읽기 태도 간 상관은 0.00 수준이었고 학습 목적의 디지털 텍스트 읽기 태도에서는 상관이 -0.15의 부적 상관관계까지 나타나 이러한 양상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3. 성별 학교급별에 따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읽기 태도 차이 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탐색한 읽기 태도 구인별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별 학교급별에 따른 읽기 태도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원중다변량분석(MANOVA)를 실시하였다.

표 10.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기술통계치(N=2,942)

하위 집단 변인	학습 디지털 읽기		여가 디지털 읽기		학습 인쇄글 읽기		여가 인쇄글 읽기		읽기 태도	
	M	SD	M	SD	M	SD	M	SD	M	SD
남학생	15.63	5.16	11.54	3.74	11.60	4.04	15.84	5.45	54.61	13.96
여학생	16.28	4.58	12.26	3.62	12.56	3.76	18.31	5.52	59.41	12.67
중학생	15.89	5.54	11.40	4.06	11.79	4.31	16.65	5.77	55.73	15.54
고등학생	15.99	4.74	12.01	3.61	12.15	3.85	17.21	5.59	57.36	13.07
전체학생	15.97	4.88	11.91	3.70	12.10	3.93	17.12	5.62	57.10	13.51

분석에 앞서, 학습 목적과 여가 목적, 디지털 텍스트와 인쇄 텍스트 읽기 태도와 관련한 4개의 읽기 태도 종속 변수의 동변량성을 살펴보기 위해 BOX의 M검증으로 공분산행렬의 동질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BOX의 M 값은 114.342, F 값은 1.413, 유의확률은 0.051로 공분산행렬이 동질함을 가정할 수 있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읽기 태도 하위 요인의 상관 정도를 분석하였을 때 구형성 검증 결과 값이 4552.315이고, 유의확률은 0.000이므로 읽기 태도 하위 요인 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에 다중변량분석을 후속적으로 실시하였다.

표 11.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읽기 태도 구인의 MANOVA 통계치

	Wilks의 람다	F	가설 자유도	오차 자유도	유의확률	비중심 모수	관측 검정력b
학교급	.990	7.115	4.000	2935.000	.000	28.460	.996
성별	.971	22.206	4.000	2935.000	.000	88.824	1.000
학교급×성별	.988	9.039	4.000	2935.000	.000	36.158	.999

학교급의 람다 값은 0.990이고 F 값은 7.115이며 유의확률은 0.000($p<0.05$)이므로 학교급에 따른 읽기 태도 하위 구인별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의 람다 값도 0.971이며, F 값이 22.206이며,

유의확률은 0.000($p<0.05$)이므로 성별에 따른 읽기 태도 구인별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과 성별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도 람다 값은 0.988이고 F 값은 9.039이며 유의확률은 0.000($p<0.05$)이므로 읽기 태도 하위 구인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읽기 태도 구인의 MANOVA 분석 결과

변량원	종속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비중심 모수	관측 검정력 ^b
학교급	학습디지털읽기	1.025	1	1.025	.043	.835	.043	.055
	여가디지털읽기	231.269	1	231.269	17.221	.000	17.221	.986
	학습인쇄글읽기	43.133	1	43.133	2.853	.091	2.853	.393
	여가인쇄글읽기	131.680	1	131.680	4.418	.036	4.418	.556
성별	학습디지털읽기	15.147	1	15.147	.641	.423	.641	.126
	여가디지털읽기	523.495	1	523.495	38.980	.000	38.980	1.000
	학습인쇄글읽기	89.156	1	89.156	5.897	.015	5.897	.680
	여가인쇄글읽기	1014.459	1	1014.459	34.038	.000	34.038	1.000
학교급×성별	학습디지털읽기	176.104	1	176.104	7.452	.006	7.452	.779
	여가디지털읽기	140.224	1	140.224	10.441	.001	10.441	.898
	학습인쇄글읽기	208.953	1	208.953	13.821	.000	13.821	.960
	여가인쇄글읽기	673.860	1	673.860	22.610	.000	22.610	.997

다음으로 학교급과 학생 성별에 따른 여가와 학습 목적, 디지털 텍스트 읽기와 인쇄 텍스트 읽기 간의 읽기 태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학교급 별 읽기 태도 차이를 분석하면, 4개 읽기 태도 하위 요인에 대하여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 수준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교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읽기 태도가 점차 부정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보고되어 왔다(윤준채, 2007; 윤준채 · 이형래, 2007; 최숙기, 2010a; 정혜승 · 서수현, 2011; McKenna, Kear & Ellsworth, 1995; McKenna *et al.*, 2012; Sainsbury & Schagen, 2004).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은 대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발달 시기에만 한정된 연구 결과이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다른 양상이 도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학교 이후 학생들의 읽기 태도 변화에 주목한 연구들은 매우 드물기 때 중학생의 읽기 태도는 중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시기까지 부정적으로 변화하다가(윤준채 · 김영란, 2008; 정혜승 · 서수현, 2012; 최숙기, 2010), 고등학교 진입 이후에 다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

특히,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의 읽기 태도가 더욱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는 최숙기(2010)와 McQuillan(201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최숙기(2010)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M=3.35)까지 부정적으로 변화하던 읽기 태도는 중학교 3학년(M=3.40), 고등학교 2학년(M=3.48)에서 다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7학년부터 12년 미국의 도시 청소년 14,315명을 대상으로 한 대단위 읽기 태도 조사를 실시한 McQuillan(2013)의 연구에서도 중학교 2학년까지 부정적으로 변화하던 읽기 태도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 목적의 읽기 태도에 대한 두 종속 변수에 대해 학교급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가 목적의 읽기 태도에 대한 두 종속 변수 모두에서는 학교급별 차이가 $P<0.0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학습 목적의 읽기 태도와 달리 여가 목적의 읽기 태도에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가 목적의 읽기 태도에서 디지털 텍스트 읽기의 경우에 고등학생(M=12.01)이 중학생(M=11.40)보다 더 긍

2 실제로 동일한 읽기 태도 검사지를 투입하여 미국 중학생 4,491명(6학년~8학년)을 조사한 McKenna *et al.*(2012)의 연구에서도 8학년까지 읽기 태도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학년=60.4, 8학년=58.7, 8학년=58.3).

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인쇄 텍스트 읽기의 경우에도 고등학생($M=17.21$)이 중학생($M=16.65$)에 비해 더욱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읽기 태도 차이를 분석하면, 4개 읽기 태도 하위 요인에 대하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 수준을 보였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읽기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사실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윤준채 · 이형래, 2007; 윤준채 · 김영란, 2008; 최숙기, 2010b; 정혜승 · 서수현, 2011, 2012; McKenna, Kear & Ellsworth, 1995; McKenna *et al.*, 2012; McQuillan, 2013; Sainsbury & Schagen, 2004). 특히, 중학생 이상의 집단을 대상으로 읽기 태도를 연구한 최근의 연구인 최숙기(2010), 정혜승 · 서수현(2012), McKenna *et al.* (2012)과 McQuillan(2013)에서는 읽기 태도에서의 성별 차이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어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이상의 학생 집단에서도 읽기 태도의 성별 차이는 일반적인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읽기 태도 차이에서 학습 목적의 디지털 읽기 태도는 학교 급별 차이와 마찬가지로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습 목적의 인쇄 텍스트 읽기 태도와 여가 목적의 읽기 태도 구인에서 모두 $P<0.001$ 의 수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욱 긍정적인 읽기 태도를 나타냈다.

이 밖에도 읽기 태도에 대하여 학교급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학습 목적과 여가 목적, 디지털 텍스트 읽기와 인쇄 텍스트 읽기 상황에 관한 4개의 읽기 태도 하위 구인에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는 전국 분포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상 2,942명을 대상으

로 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읽기 태도 양상을 분석하였다. McKenna *et al.*(2012)의 읽기 태도에 관한 4요인의 21개 문항을 번역하여 투입하고 이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타당화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모형에 따른 최종 문항과 읽기 태도 4 요인을 토대로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읽기 태도 양상을 분석하고자 다집단 요인분석(multigroup CFA)과 M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읽기 매체 환경 범주와 읽기 목적 유형 범주에 따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읽기 태도 양상을 탐색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확인적 요인분석 실시 결과, 읽기 태도 모형은 읽기 목적과 읽기 매체 유형에 따라 학습 목적 인쇄 텍스트 읽기, 여가 목적 인쇄 텍스트 읽기, 여가 목적의 디지털 텍스트 읽기, 학습 목적의 디지털 텍스트 읽기의 4요인 읽기 태도 구인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 요인 부하량 0.5 이하인 문항 16, 19, 20, 21번 문항 4개를 삭제하여 최종 17개 문항을 확정하였다. 이 가운데 16, 19, 20번 문항은 선행 연구에서도 요인 부하량에 관한 타당도 문제가 보고되어 공통적으로 삭제된 문항이었다. 디지털 텍스트 환경의 읽기 태도에 관해 개발된 문항들의 타당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문항의 4요인 구조의 수정 모형은 $\chi^2_{113}=1458.738$.($p<0.001$), CFI=0.942, TLI=0.90, RMSEA= 064의 적정 적합도 지수를 보고하여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읽기 매체와 읽기 목적별 읽기 태도 구인 4개에 관한 상관 분석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읽기 태도 양상을 살펴보면, 학습 목적의 읽기 태도는 인쇄 텍스트와 디지털 텍스트 간에 0.7의 높은 상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여가 목적의 디지털 텍스트 읽기는 다른 3개의 읽기 태도 구인에 대하여 0.05~0.2의 매우 낮은 상관 수준을 보였다. 여가 목적의 인쇄 텍스트 읽기 태도의 경우에 다른 읽기 태도와 0.5~0.6의 정적 상관 수준을 보인다고 하였을 때 디지털 텍스트 환경의 여가 목적의 읽기 태도는 다른 구인간의 관계가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상관분석에 근거한 논의이므로 예측력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여가 목적의 읽기 태도가 긍정적인 독자의 읽기 참여나 활동이 더욱 적극적임을 고려할 때 여가 목적의 읽기 태도는 읽기의 정의적 요인을 설명하는 주요한 예측 변인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텍스트 환경에서의 여가 목적의 읽기 태도가 다른 여타 읽기 태도와 낮은 상관 수준을 보인다는 사실은 이러한 예측력에 관한 논의들과 배치되는 것이다.

셋째, 성별과 학교급 변인에 따라 4개 구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과 학교급, 성별과 학교급의 상호작용에 따른 차이는 $p=0.00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 태도에 대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읽기 태도가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 목적의 읽기에서는 읽기 매체와 상관없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학습 목적의 읽기에서는 읽기 매체와 상관없이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읽기 태도에 대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읽기 태도가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 디지털 텍스트 읽기 태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읽기 태도에 대하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 학년별 상호작용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후속적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텍스트 환경의 읽기 활동에 대한 실제적인 문항 개발이 요구된다. 여가 목적의 디지털 텍스트 환경의 읽기 태도 문항 중 2개는 타당도 문제로 삭제되었고 최종 문항으로 선정된 문항들도 다른 읽기 태도 문항과는 다소 이질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는 여가 목적의 디지털 텍스트 읽기 태도와 다른 태도 구인 간의 낮은 상관관계로도 설명된다.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SNS 활동 이외에 청소년들의 여가 목적의 디지털 읽기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탐색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문항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문항은 다른 읽기 태도 문항과 이질적으로 동료가 아닌 특정한 대상 혹은 작가가 작성한 글을 읽는 활동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읽기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매우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가 목적의 디지털 텍스

트 읽기 태도 문항이 지닌 비실제성의 문제나 다른 태도 문항 간의 이질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문항 개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의 읽기 태도가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학습 목적의 읽기 태도에 대해서는 학교급별 차이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두 집단의 읽기 태도가 거의 유사한 수준이며 여가 목적의 읽기 태도에서 고등학생들의 읽기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교과 학습을 위한 읽기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읽기 태도가 상향한다고 보는 일반적 관점과는 다른 결과로 볼 수 있다.

학습 목적의 독서가 아닌 여가 목적의 독서에서 읽기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 연구나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부정적으로 변화하던 읽기 태도가 고등학교 시기에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실제적인 이유를 함께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급별로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 간의 표집 차이로 인해 학교급이 아닌 학년별 태도 양상에 관한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향후 중학생 표집을 보다 확대하고 학교급별 표집 비율을 유사하게 유지하여 읽기 태도에 관한 분석을 세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읽기 매체와 읽기 목적을 연계한 4요인 기반의 읽기 태도에 관한 조사 연구가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연계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학교급별로 군등 표집을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년별 읽기 태도의 발달 추이를 탐색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쇄 텍스트 환경의 읽기 태도와 읽기 성취 간의 관계가 디지털 텍스트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인쇄 텍스트 환경에서의 독자는 읽기 태도가 긍정적인 경우 읽기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읽기 성취도도 높다는 선순환적 모형 속에서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디지털 텍스트 읽기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 인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읽기 태도의 성별 차이에 주목하는 이유는 읽기 성취의 성별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목적의 경우에 디지털 텍스트의 읽기 태도에서 성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ISA 2012의 디지털 읽기 평가에서의 성별 차이가 인쇄 글 읽기 평가에 비해 현격히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고려하여 볼 때(송미영 외, 2013), 디지털 텍스트 환경에서의 읽기 태도와 성취간의 관계도 유사한 양상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이들 간의 작동 기제가 인쇄 텍스트 환경에서와 동일한 방식인지 아닌지에 대해 탐색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은 2014. 1. 31. 투고되었으며, 2014. 2. 7. 심사가 시작되어 2014. 2. 28.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윤준채, 「초등학생의 읽기 태도 발달에 관한 국제 비교 —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
『국어교육학연구』 제28호, 국어교육학회, 2007, pp. 485-517.
- 윤준채 · 김영란(2008), 「중학생 독자의 독서 태도 발달 경향에 관한 연구 I」,
『국어교육학연구』 제43호, 국어교육학회, pp. 159-184.
- 윤준채 · 이형래(2007), 「초등학생의 읽기 태도 발달에 관한 연구(1)」, 『국어교육연구』 제40호,
국어교육학회, pp. 161-190.
- 정혜승 · 서수현(2011), 「초등학생의 읽기 태도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제134호,
한국어교육학회, pp. 353-382.
- _____ (2012), 「중학생의 읽기 태도 양상」, 『독서연구』 제27호, 한국독서학회, pp.
258-283.
- 최숙기(2010a), 「중학생의 읽기 동기와 읽기 태도에 관한 상관성 연구」, 『독서연구』 제23호,
한국독서학회, pp. 345-380.
- _____ (2010b), 「중학생의 읽기 능력 발달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1), 「중학생의 읽기 발달을 위한 읽기 교육 방법론」, 역락.
- _____ (출판중), 「청소년 온라인 독자의 LESC 독해 처리 과정 모형에 기반한 읽기 교수 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201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Ajzen, I., & Fishbein, M.(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Alexander, J. E. & Filler, R. C.(1976), "Attitudes and Reading,"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Newark, DE.
- Anderson, M. A., Tollefson, N. A., & Gilbert, E. C.(1985), "Giftedness and reading: A cross-sectional view of differences in reading attitudes and behaviors," *Gifted Child Quarterly* 29(4), pp. 186-189, doi:10.1177/001698628502900411.
- Barnett, J. E. & Irwin, L.(1994), "The effects of classroom activities on elementary students' reading attitudes," *Reading Improvement* 31, pp. 113-120.
- Bentler, P. M.(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pp. 238-246, doi:10.1037/0033-2909.107.2.238.
- Browne, M. W.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Greaney, V. & Hagerty, P. E.(1987), "Correlations of leisuretime reading," *Journal of Research in Reading* 10(1), pp. 3-20, doi:10.1111/j.1467-9817.1987.tb00278.x.
- Kush, J. C. & Watkins, M. W.(1996), "Long-term stability of children's attitudes toward reading,"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9(5), pp. 315-319, doi:10.1080/00220671.1996.9941333.
- Lehnart, A., Madden, M., MacGill, A. R., & Smith, A.(2007), "Teens and social media," Washington DC: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Retrieved April 16, 2009,

- from http://www.pewinternet.org/PPF/r/230/report_display.asp.
- Lenhart, A., Simon, M. & Graziano, M.(2001), *The Internet and education: Findings of the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Washington, D.C.: Pew Charitable Trusts.
- Mathewson, G. C.(1994), "Model of attitude influence upon reading and learning to read," In R. B. Ruddell, M. R. Ruddell, & H. Singer(Eds.),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es of reading*, 4th ed., pp. 1131-1161, Newark, D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McKenna, M. C., Conradi, K., Lawrence, C., Jang, B. G., & Meyer, J. P.(2012), "Reading attitudes of middle school students: Results of a U.S. survey," *Reading Research Quarterly* 47(3), pp. 283-306.
- McKenna, M. C., Kear, D. J., & Ellsworth, R. A.(1995), "Children's attitudes toward reading: A national survey," *Reading Research Quarterly* 30(4), pp. 934-956, doi:10.2307/748205.
- McKenna, M. C., Stratton, B. D., Grindler, M. C., & Jenkins, S. J.(1995), "Differential effects of whole language and traditional instruction on reading attitudes," *Journal of Reading Behavior* 27, pp. 19-44.
- McQuillan, J.(2013), Urb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reading attitudes and beliefs: a large sample survey," *Global journal of human social science linguistics & education* 13(7). pp. 31-49, from https://globaljournals.org/GJHSS_Volume13/6-Urban-Middle-and-High-School-Students.pdf.
- Mitchell, T. L. & Ley, T. C.(1996), "The reading attitudes and behaviors of high school students," *Reading Psychology* 17(1), pp. 65-92.
- Rhodes, J., Robnolt, V. J., & Richardson, J. S.(2005, December), *Study skill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Creating a new model*, National Reading Conference, Miami, FL.
- Sainsbury, M. & Schagen, L.(2004), "Attitudes to reading at ages nine and eleven," *Journal of Research in Reading* 27, pp. 373-386.
- Smith, M. C.(1990),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reading attitude development from childhood to adulthood,"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3(4), pp. 215-219.
- Tucker, L. R. & Lewis, C.(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1), 1-10, doi:10.1007/BF02291170.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읽기 태도 양상에 관한 연구

— 읽기 목적과 읽기 매체 변인을 중심으로 —

최숙기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읽기 태도 모형을 탐색하고 모형에 따른 읽기 태도의 학교급별 양상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국 분포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2,942명을 대상으로 하여 McKenna *et al.*(2012)의 수정된 읽기 태도 문항을 투입한 뒤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다집단 요인분석(multigroup CFA), M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확인적 요인분석 실시 결과, 읽기 목적과 읽기 매체 유형에 따라 학습 목적 인쇄 텍스트 읽기, 여가 목적 인쇄 텍스트 읽기, 여가 목적의 디지털 텍스트 읽기, 학습 목적의 디지털 텍스트 읽기의 4요인 구조의 읽기 태도 모형이 $\chi^2_{113}=1458.738$. ($p<0.001$), CFI=0.942, TLI=0.90, RMSEA= 0.064의 적정 적합도 지수로 선정되었다. 둘째, 학습 목적의 읽기 태도는 인쇄 텍스트와 디지털 텍스트 간에 0.7의 높은 상관 수준을 보였지만, 여가 목적의 디지털 텍스트 읽기는 다른 3개의 읽기 태도 구인에 대하여 0.05~0.2의 매우 낮은 상관 수준을 보였다. 셋째, 읽기 태도에 대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읽기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읽기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목적의 읽기 태도는 읽기 매체에 상관없이 학교급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학습 목적의 읽기 태도는 읽기 매체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습 목적의 디지털 텍스트 읽기 태도를 제외한 나머지 읽기 태도 구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핵심어 청소년 독자, 읽기 태도, 디지털 텍스트, 인쇄 텍스트, 읽기 목적, 성별 차이, 학교급별 차이, 확인적 요인분석, MANOVA

ABSTRACT

Exploring Korean Adolescents' Reading Attitudes Model

Choi, Sook - ki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reading attitudes model of Korea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using a survey developed by McKenna *et al.* (2012). Totally 2,942 students chosen according to convenience sampling method participated in the survey.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stud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ultigroup CFA and MANOVA were employed in the study.

According to results of the study;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was conducted on the 21 items for a four-factor; academic digital, recreational digital, academic print, and recreational print. The reading attitudes model revealed a goodness fit to the data ($\chi^2_{113} = 5,169.30$, $p < 0.001$, CFI = 0.87, TLI = 0.85, RMSEA = 0.08). (2) The high coefficient ($r = 0.741$) between academic digital and academic print may show that where reading for academic purposes is concerned, text type or medium makes little difference to Korean adolescents. But the weak relationships between recreational digital and the other three factors were revealed. (3) The results of MANOVA to examine whether an effect for gender, grade, and grade by gender existed for four attitude factors, it was seen that the attitudes of high school students were more positive than those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attitudes of females were more positive than those of males.

KEYWORDS Korean adolescents reader, reading attitude, digital text, print text, reading purpose, gender, school level, CFA, MANOVA